

전북관광 퓨전힙합 영상 '화제'

이것이 한국적인 Rhythm

관광공사 제작 1600만뷰 넘어

전북도는 '한국의 리듬을 느껴세요! (Feel the Rhythm of Korea, 한국관광공사 제작)' 전북(전주, 완주)편 동영상에 1,600만 뷰가 훨씬 넘으며, 전라북도 관광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Feel the Rhythm of KOREA'는 전북, 서울, 부산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8월부터 Imagine Your Korea(한국관광공사 운영)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전북 동영상에 대해 네티즌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댓글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은 내가 본 영상 중 최고', '왜 눈물이 나지? 우리나라 너무 좋다'라는 댓글 등과 함께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이 발명한 랩'이라고도 표현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전북 동영상 속 등장인물과 음악은 단순해 네티즌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색동옷을 입은 도깨비(요정)들이 퓨전국악에

맞춰 힙합 댄스를 추며 전주한옥마을,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수목원, 전주 아중역 한옥레일바이크, 완주 아원고택 등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치 밴드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출현한 감성 바이럴 영상 전북편은 1분 40초라는 짧은 영상으로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한옥'의 미(美)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퓨전국악(곡명: 좌우나홀)은 전통 소리의 고장인 전라북도를 만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기존 SNS 채널은 물론이고 틱톡, 아이치 등 중화권 기반의 SNS로도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동영상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만 보는데 아니라 여러 번 보게 하는 동영상이다"며 "전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전통성을 잘 표현해 전북도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2020 전문 문화기획자 교육 수료식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2020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교육' 수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진 교육생 28명이 참여했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문화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문화관광 사업기획부터 SNS 홍보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또한 수료생에게는 도출한 사업 모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담 코치와의 개별 지도를 지원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교육을 통해 1기 수료생 35명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이들을 위한 국악 나들이 '만보와 별별머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예원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보따리 '만보와 별별머리'를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이 공연은 3세 이상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국악극, 연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이다.

만보와 별별머리는 옛날 아직 모든 생명이 채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시절을 배경으로 사자다리 '만보'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반쪽을 만나 사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으며, 만보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변신 놀이가 펼



국립민속국악원, 내달 5일 열여 사자다리가 자신의 반쪽 만나 사자가 되는 과정 그린 동물 탈놀이

쳐지는 동물 탈놀이이다. 관람문의는 전화 (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객석 띄어 앉기로 사전예약을 통한 선착순(회당 100명)으로 예약은 필수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건축, 문화·삶을 담는 그릇'

초기 작품 모형 5점·판넬 등 20여점 등 선보여

전주대학교 심세보 교수(건축학과)의 개인전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린다.

'Context vs Tectonic'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심 교수가 건축 디자인을 시작한지 30년만에 처음으로 여는 전시회로 초기 작품의 모형 5점과 판넬, 스케치 및 도면 20여 점, 기타 그림 등이 전시된다.

심 교수는 건축은 문화와 삶을 담는 그릇이자 가장 첨예한 현실과의 타협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건축가로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겪었던 다양한 상황과 극복의 과정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하며 그동안의 건축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Context는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인 문화, 환경, 맥락, 사람 등을 포괄적으로 적시한 상징적인 단어이며 Tectonic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재료, 공법, 시각적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어다. 심 교수는 두 단어로 대표되는 건축적 환경과 상황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건축했던 건물들 중 초기작 일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심세보 교수는 "두 단어로 함축되는 건축적인 사고 과정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다"며 "건축을 바라보는

전주대 심세보 교수 누벨백미술관서 개인전



오랜 고민의 흔적이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보고로서 초기 작품들을 선택했으며, 이를 위한 간결한 건축과정을 포함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세보 교수의 개인전 오픈식은 28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까지 누벨백 미술관(홍산북로29-5/063-222-7235)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